

미국 사회 각계에 한국을 전파하다

김종필-JP는 다재다능한 팔방미인으로 불리운다. 엄청난 양의 책을 읽은 독서가로 동서고금의 사상을 넘나들고 서예, 그림, 음악 등 예술과 골프, 바둑, 승마등에도 능하다. 우리나라 현대사의 중심에 있던 윤정은 타고난 예인藝人이다. 그래서 윤정은 정치인이면서도 문화, 예술, 산업계 등 어느 분야에서 이던 그의 박식함과 깊은 조예로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우정을 쌓을 수 있었다.



외국의 저명 인사들과 윤정의 공·사석公私席 만남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격의없는 대인관계였다. 그의 유머러스한 화술과 해박한 지식, 기억력 등은 상대를 매료시켰고 술을 마다하지않는 여유있는 성품이 그들과의 친교를 더욱 돈독히 했다. 언론에서나 일반인들이 윤정을 호칭할 때에 흔하게 'JP'로 부르는 것도 그의 격의없는 이미지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JP'라는 약칭은 1964년 2차 외유시, 당시 미국 대통령 존 에프 케네디를 약칭 'JFK'로 부르고 있는 것에 아이디어를 얻어 주미 특파원들이 'JPK'로 보도하기 시작하여 'JP'라는 애칭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UNICEF 대사 대니 케이와 JP



1961.12.30 주한 미군 위문 공연차 방한한 희극배우 대니 케이를 자택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다. 케이가 안고 있는 아이는 아들 진.



1963년 20세기 폭스 스튜디오에서 대니 케이와 밴플리트 장군.

대니 케이 (Danny Kaye, 1913 ~ 1987)



희극배우로서 평소 전쟁 고아 구제사업과 사회복지 사업에 참여해 온 대니는 1961년말 윤정의 초대로 주한 미군 위문공연을 위해 내한하여 첫 인연을 맺었다.

위 사진에서 보듯 대니는 윤정의 초대를 받아 자택에서 만찬을 갖는 자리에서도 식구들과 격의없는 대화를 나누며 친숙해졌다. 이후 1963년 자의반타의반 1차 외유시에도 20세기 폭스사 스튜디오로 윤정을 초대하여 밴플리트장군과 함께 리허설을 관람하는 등 한미간의 문화예술 협력과 교류에도 역할을 맡았다.

1954년 유엔아동기금(UNICEF)의 초대 친선대사로 임명되어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 전쟁 고아와 불우 아동을 위한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한국에 많은 팬을 가진 셸리와 JP



1963년 미국 20세기 폭스사 방문,배우 셸리 맥레인과 함께.



셸리 맥레인 (SHIRLEY MacLaine, 1934년 ~)



셸리는 1950년대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받은 영화배우이자 엔터테이너이면서도 지성적인 용모와 폭넓은 사회활동으로 명성을 쌓았다. 1962년 9월에 남편과 함께 내한하여 KBS방송 출연과 대한극장에서 팬들을 위한 막간 인사회도 가졌다. 1963년 10월 윤정이 20세기 폭스사를 방문하였을 때 만나 관심사를 나누기도 하였다.

베네치아 국제 영화제와 베를린 국제 영화제에서도 여우주연상을 두 번씩 수상한 바 있는 실력과 여배우이다. 불교 및 동양사상에 조예가 깊은 맥클레인은 연기 외에 저술가로도 열심히 활동하면서 영혼과 환생에 대한 믿음을 거침없이 설파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고구마처럼 생겼다고 생각한다.

나는 나를 황금처럼 귀중한 마음을 가진 감자라고 여기는데."





1962.10 워싱턴 웨라튼 파크 호텔에서 미국 고위 장성들과 친목 파티.
맨 오른쪽은 정일권 주미대사.



1963년 미국 정유회사 등 산업계 시찰후 벤프리트장군과 배우 셸리 맥레인,
플루어사 회장과 함께 만찬을 하고 있다.



1963년 플루어정유사
디이터 부회장 초청으
로 라스베이거스에서 활
동중인 패티킴, 김치캐
츠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였다.



1968.5.23 제주지역 미 평화봉사단원들에게 오찬을 베풀고 치하했
다. 윤정은 전국 각 지역의 미평화봉사단을 순회하며 격려했다.



1988.5.22 총리실을 방문한 홀트여사(윤정 오른쪽)와 가족들을 맞아 홀트
여사의 사회봉사에 대해 환담을 나누었다.



1989.6.17 더글라스항공 방문시 친필 서예 작품을 새긴 필통을 선물로 주며 글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있다.



1962.11.3 애드워드 기지 비행시험센터에서 신예전투기를 시승하고있다. 옆은 김두만 장군.



1962.11.3 초음속전투기를 탑승한 후 이를 기념하는 증명서를 전달받고 있다.



1989.6.26 맥도널 더글라스의 웨스트 포크 목장에서의 야외 만찬

학자,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교류

한국 혁명에 대해 관심이 많은 미국 언론인들과 정치 평론가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노력도 기울였다. 특히 미국 지성의 대표라 불리우는 월터 리프만을 만났고, 월터 휘트만 로스토, 헨리 키신저, 스칼라피노 등 저명 학자들과 스펜서 데이비스 AP통신 사장, 트로이 헨슨 UPI사장, 로이스 워싱턴포스트 사장 등을 만나 한국의 미래와 한미간의 우호협력 문제에 대해 방향을 제시하는 등 광범위하고 다각적인 정치, 사회, 경제, 언론 활동을 전개하였다.

